

간호대학생의 눈치와 그릿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배한주, 김연하*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Nunchi and Grit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Han-Ju Bae, Yeonha Kim*
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눈치와 그릿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22년 12월 7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161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눈치 평균은 4.16 ± 0.56 점이었으며, 그릿은 평균 2.93 ± 0.55 점, 문제해결능력은 평균 3.51 ± 0.42 점이었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은 눈치, 그릿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beta = .38, p < .001$), 눈치($\beta = .33, p < .0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의 설명력은 33.1%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눈치와 그릿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hat attempt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Nunchi, Grit, and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December 2, 2022 to January 5, 2023.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61 2nd year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located in D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22.0 program. The mean score for Nunchi in nursing students was 4.16 ± 0.56 points, the mean score for Grit was 2.93 ± 0.55 points and the mean score for problem solving ability was 3.51 ± 0.42 points. Problem solving ability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Nunchi and Grit.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multiple regression were Grit ($\beta = .38, p < .001$) and Nunchi ($\beta = .33, p < .001$). These factors explained 33.1% of the variance i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increase Nunchi and Grit to improve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se results should be used in the formulation of an effective curriculum for nursing students.

Keywords : Problem Solving Ability,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Yeonha Kim(Keimyung College University)
email: trust10245@naver.com

Received July 7, 2023

Accepted September 1, 2023

Revised August 8, 2023

Published September 30,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독립된 삶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1]. 최근 청년의 취업난으로 자신의 자아성찰과 직업관이 부족한 상태로 취업을 목적으로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2].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질적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 간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3]. 따라서 전공교육과정 및 대학생활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며 간호학전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어 임상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4]. 즉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을 안정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이 장래 간호인력에 대한 질적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 보건의료환경은 복잡한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인식의 증대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적 간호수행능력을 요구하고 있다[5].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은 빠르고 정확한 분석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6].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의 현재 상태와 해결해야 하는 목표와의 차이를 인지하여 이 차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지적인 능력을 의미한다[7].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문제해결능력은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해야 할 학습성과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8]. 간호학은 건강과 관련된 인간의 반응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 학문이기 때문에[9]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눈치를 보게 된다.

눈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표현되는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대인 관계적인 과정이며 양상이다[10]. 눈치는 행동요인과 파악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11]. 눈치행동요인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11]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대인관계 양식이며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2]. 눈치파악요인은 마음 읽기와 인지 공감과 유사하지만 일대일 상황과 여러 명과의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아니다[10]. 간호현장에서도 눈치는 의사소통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환자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태로 간호사는 환자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

현을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 눈치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의사소통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환자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13]. 눈치는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14,15]과 정적 관계가 있고 임상실습스트레스와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하지만 문제해결능력과 눈치가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릇은 역경과 실제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끈기와 도전하는 일관성 있는 열정을 나타낸다[17]. 그릇이 높은 경우 목표달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며, 미래지향적 동기와 열정으로 학업성적 및 삶에 대한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18]. 학습 환경의 변화 속 임상실습, 학업,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그릇 정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눈치와 그릇의 관계를 동시에 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의 눈치와 그릇 및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눈치, 그릇,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눈치, 그릇, 문제해결능력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눈치, 그릇,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1.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눈치와 그릇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4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 소재 일개 대학의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임의 표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동일한 대상의 선행연구[19]에 근거하여 중간크기효과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90으로 하였고 예측변수 8개(성별, 나이, 건강상태, 동아리 가입여부, 전공 만족도, 눈치, 그릿, 문제해결능력)를 투입해 G 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표본크기는 최소 136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는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63부를 설문지 배포하여 그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불충분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61부를 분석하였다.

1.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지 양식을 활용하여 2022년 12월 7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자만 온라인 설문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설문 응답 시간은 평균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전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하는 자에게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외로만 사용하고 자료수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설문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외로만 사용되도록 각각의 설문지를 코드화하고, 무기명으로 암호화된 파일에 3년간 보관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전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1.6 연구 도구

1.6.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나이, 건강상태, 동아리활동, 전공만족도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6.2 눈치

눈치는 Heo와 Park[11]이 개발한 것으로 2개의 하위 영역(눈치파악요인 7문항, 눈치행동요인 5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눈치는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눈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 .79 \sim .87$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1.6.3 그릿

그릿(Grit)은 Duckwort 등[17]이 개발한 도구를 Lee[20]가 번안하고 역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지속적 관심(6문항), 노력 지속성(6문항)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목표 달성의 열정과 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9$ 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1.6.4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Lee 등[7]이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 도구 중에서 대학생 문제해결능력 도구로 측정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5개 요인(문제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실행, 수행평가)과 9개 하위 요소(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감수, 평가, 피드백)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매우 드물게)부터 5점(매우 자주)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이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4$ 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 0.94$ 이었다.

1.7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WIN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눈치, 그릿과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눈치, 그릿,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 본론

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으로 성별은 여학생이 130명(80.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세였다. 건강상태 좋음이 87명(54.0%),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이 127명(78.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공을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4명(58.4%)으로 나타났다.

Table 1.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6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31(19.3)
	Female	130(80.7)
Age	M±SD	21.25±4.06
	≤21	126(78.3)
	≥22	35(21.7)
Health state	Bad	6(3.7)
	Usually	68(42.2)
	Good	87(54.0)
Club activity	Yes	127(78.9)
	No	34(21.1)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3(8.1)
	Moderate	54(33.5)
	Satisfaction	94(58.4)

2.2 눈치, 그릿과 문제해결능력 정도

눈치, 그릿과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눈치는 5점 만점에 4.16±0.56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눈치파악요인 4.11±0.65점, 눈치행동요인 4.21±0.65점으로 나타났다. 그릿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93±0.55점이었다. 하위영역의 평균 점수는 지속적인 관심 2.58±0.72점, 끈기있는 노력 3.27±0.68점이었다. 문제해결능력은 5점 기준에 평균 3.51±0.4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nunchi, gri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161)

Variables	M±SD	Min	Max
Nunchi	4.16±0.56	1.90	5.00
Nunchi-grasps factor	4.11±0.65	1.00	5.00
Nunchi-behaviors factor	4.21±0.65	2.00	5.00
Grit	2.93±0.55	1.17	4.92
Consistency of interest	2.58±0.72	1.00	5.00
Perseverance of effort	3.27±0.68	1.17	5.00
Problem solving ability	3.51±0.42	2.49	4.91

2.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눈치, 그릿과 문제해결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눈치, 그릿과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눈치는 성별($t=-2.33, p=.021$), 전공만족도($F=10.93, p<.001$)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눈치 점수가 높았고, 전공을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불만족보다 눈치 점수가 높았다. 그릿은 전공만족도($F=3.92, p=.022$)에서 차이가 있었다. 전공을 만족하는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그릿 점수가 높았다. 문제해결능력은 전공만족도($F=8.8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을 만족하는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았다.

Table 3. Differences in nunchi, gri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1)

		Nunchi		Grit		Problem solving ability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3.95±0.61	-2.33(.021)	3.02±0.50	1.05(.297)	3.49±0.37	-0.30(.766)
	Female	4.21±0.54		2.90±0.57		3.52±0.43	
Age	≤22	4.18±0.49	1.26(.210)	2.90±0.55	-1.40(.162)	3.50±0.41	-1.30(.195)
	≥23	4.01±0.69		3.09±0.59		3.63±0.45	
Health state	Bad	3.78±1.15	3.14(.077)	2.58±0.61	2.50(.086)	3.46±0.42	2.22(.112)
	Usually	4.06±0.59		2.86±0.56		3.44±0.46	
	Good	4.27±1.47		3.00±0.53		3.58±0.38	
Club activity	Yes	4.20±0.53	1.61(.110)	2.92±0.54	-0.04(.967)	3.53±0.40	0.82(.412)
	No	4.02±0.67		2.93±0.61		3.46±0.50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	3.88±0.78	10.93(<.001) c>a,b	2.86±0.75	3.92(.022) c>b	3.42±0.58	8.87(<.001) c>b
	Moderate ^b	3.94±0.53		2.77±0.51		3.34±0.37	
	Satisfaction ^c	4.32±0.49		3.02±0.53		3.62±0.39	

2.4 눈치, 그릿과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대상자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눈치는 그릿($r=.34, p<.001$), 문제해결능력($r=.46, p<.001$)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릿은 문제해결능력($r=.49, p<.001$)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눈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Academic Nunchi, Gri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161)

Variables	Nunchi r(p)	Gritr (p)	Problem solving abilityr(p)
Nunchi	1		
Grit	.34(<.001)	1	
Problem solving ability	.46(<.001)	.49(<.001)	1

2.5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눈치, 그릿과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전공만족도를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확인된 일반적 특성은 더미(dummy)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21~.49로 .80 이상인 변수는 없었다.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13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고, Durbin Watson은 1.70으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8.85,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343으로 설명력은 34.3%이었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beta=0.37$)과 눈치($\beta=0.29$)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3.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눈치, 그릿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눈치는 5점 만점에 4.16점이었고, 하부요인인 눈치파악요인은 4.11점, 눈치행동요인은 4.21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눈치 점수 3.04점[21]에 비해 상당히 높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대상의 연구[22]에서 4.02점에 비해서도 높다. 하지만 2학년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는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간호대학생은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및 실습 수업을 통해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형성하면서 일반 대학생보다 눈치 수준이 더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눈치를 비교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간호학과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눈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3,24] 결과와 일치한다. 눈치 수준이 높은 집단이 주관적 안녕감, 대인관계[14] 및 대학생활적응[25]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눈치행위는 3~4학년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기전으로 나타났다[16]. 눈치는 개인의 심리적 기제로서 노력으로 습득될 수 있는 대처기전이다[11]. 따라서 임상실습 전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치의 형성기제와 눈치 수준을 파악하고, 눈치수준을 함양할 중재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그릿은 5점 만점에 2.93점이었고, 하위영역인 지속적인 관심 2.58점, 끈기있는 노력 3.27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의[26] 평균 2.97점과 유사하다.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끈기있는 노력이 지속적인 관심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Influence of problem solving ability

(N=161)

Categories	B	S.E	β	t(p)	R^2	Adjusted R^2	F(p)
(Constant)	1.75	0.22		7.64(<.001)	.355	.343	28.85 (<.001)
Satisfaction	0.12	0.06	0.14	1.98(.050)			
Nunchi	0.21	0.05	0.29	4.00(<.001)			
Grit	0.28	0.05	0.37	5.37(<.001)			

† Dummy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reference=Satisfaction)

연구[27]와 유사하며 흥미를 유지시켜 준다면 학생들의 그릿 수준은 노력지속과 함께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그릿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간호학 전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 [26] 결과와 유사하다. 그릿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사를 알고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집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릿은 교사의 교육, 조언 등을 바탕으로 강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28]. 따라서 교수자는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간호대학생과의 전공관련 교과 및 교과외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적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3.51점으로 간호학과 2학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19]의 연구에서 3.55점과 유사하다. 간호대학생 2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평균 3.64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는 학년이 낮은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문제해결능력이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9]와 유사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아 전반적인 지식을 활용한 역량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문제해결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Bulfonet 등[30]은 다양한 전략적 교육 지도 전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2학년은 임상실습 전 시기로서 임상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공 이론, 교내실습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임상 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에서 문제중심학습법, 팀기반 학습법,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눈치와 그릿은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31]에서도 그릿이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문제해결능력과 눈치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서 본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릿, 눈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두 변수가 문제

해결능력을 34.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그릿은 문제해결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31]에서도 그릿이 문제해결능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눈치가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아직 시행된 바 없어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눈치 수준의 향상은 의사소통 능력을 증가시켜[14] 문제해결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상황에 대한 판단이 높아지며 이를 위한 바탕이 되는 것이 눈치와 그릿이므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의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수학습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에 눈치와 그릿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과 2학년을 편의표집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눈치와 문제해결능력 간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추후 이에 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눈치, 그릿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눈치, 그릿은 문제해결능력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 지역을 확대하여 표본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2학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문제해결능력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WW Norton & Company. 1963.
- [2] K. M. Park, A study on depression awareness,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 and professional help seeking intention of nursing college freshma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3, pp.31-39, 2022.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3.31>

- [3] S. H. Cho, K. S. Yun, Effects of grit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 No.2, pp.117-129, 2020.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20.14.2.117>
- [4] H. S. Park, K. S. Jeong,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4, pp.549-557,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549>
- [5] H. J. Kang, M. Y. Kim, H. J. Choe, Effects of integrated nursing practicum by applying simulation-problem based learn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cess competence, and self-confidence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12, pp.495-508, 2016.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6.16.12.495>
- [6] K. R. Shin, J. W. Hwang, S. J. Shin, Concept analysis on the clinical critical thinking ability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20, No.5, pp.707-718, 2008.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4068844>
- [7]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2003.
- [8] M. O. Kim, H. A. Nam, A. Y. Lee,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process on clinical decision-making of nursing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5, pp.877-885, 2019.
DOI: <http://doi.org/10.22251/jlcci.2019.19.5.877>
- [9] H. W. Kwak,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frustration tolerance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8, pp.233-242,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8.233>
- [10] M. J. Jin, M. H. Hyun, Affect and person-evaluation about the other's nunchi behavior: Success and intention of nunchi,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5, pp.463-482, 2014.
- [11] J. H. Heo, W. J.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nchi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6, pp.3537-3555, 2013.
DOI: <https://doi.org/10.15703/kic.14.6.201312.3537>
- [12] H. J. Park, H. J. 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nunchi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5, No.1, pp.48-57,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48>
- [13] J. H. Heo, W. J. Park, S. J. Kim, Conceptualization of nunchi, *Studies in Humanities*, Vol.33, pp.557-581, 2012.
- [14] Y. S. Yang, S. H. Hong, J. L. Ryu,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nunchi on interpersonal harmon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7, pp.75-83, 2020.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7.075>
- [15] Y. M. Kim, C. S. Shim, S. J. Kang, H. J. Shin, Influence of nunchi and learning flow on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6, No.4, pp.445-452, 2020.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6373>
- [16] Y. S. Song, H. J. Gong, S. A. Kim, M. J. Shim, S. Y. Yu, S. J. Yun, H. S. Lee, Y. M. Lee, The mediating effect of nunchi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elf-esteem in student nurses,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27, No.1, pp.53-62, 2023.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007670>
- [17]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18] M. R. Jung, E. Jeo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6, pp.414-423, 201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78499>
- [19] Y. J. Kim, Influence of self-esteem, perception of communication importance,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problem solving skill on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6, No.7, pp.237-249, 2022.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2.10.16.7.237>
- [20] S. Lee, Y. W. Sohn, What are the strong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Deliberate practice and gri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0, No.3, pp.349-366, 2013.
DOI: <https://doi.org/10.16983/kisp.2013.10.3.349>
- [21] S. H. Kim, S. H. Park, M. J. Baek, Mediating effects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nunchi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30, No.1, pp.1-8, 2021.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21.30.1.1>
- [22] M. R. Jo, H. J. Lee, S. Y. Kim, H. S. Kwon, J. G. Jo, The Effects of Nun-chi and Self-Determination on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12, pp. 515-524, 2023.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12.515>
- [23] S. J. Kang, C. S. Shim, Factors of influencing empathic ability, nunchi and learning flow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focusing on online clinical practice students during the COVID-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3, pp.405-413, 2021.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478>

- [24] J. H. Heo, The effects of nunchi on SWB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3, pp.1067-1084, 2014.
DOI: <https://doi.org/10.15703/kjc.15.3.201406.1067>
- [25] M.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4 pp.170-179,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4.170>
- [26] K. N. Kim, Effects of grit, empathy, and awareness of the nursing profession on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6, pp.47-58, 2022.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16.47>
- [27] I. S. Lee, M. K. Jeon, M. Y. Lee, Stress,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7, No.3, pp.298-306, 2020.
DOI: <https://doi.org/10.5953/JMJH.2020.27.3.298>
- [28] K.W. Hwang, *A Study on Application of Grit to Character Educatio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 [29] J. H. Park, M. H. Park, Y. A. Kim, J. H. Ba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cess competence on problem solving proc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4, pp.725-734, 2022.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4.725>
- [30] G. Bulfone, C. Galletti, E.Vellone, A. Zanini, R. Quattrin.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experience of the bachelor degree course in nursing at the University of Udine. *Professioni Infermieristiche*, Vol. 61, No. 3, pp. 139-148, 2008.
- [31] S. J. Kim, G. J. Jang, Grit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distress tolerance and self-directednes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7, No.2, pp.126-132, 2022.
DOI: <https://doi.org/10.21032/jhis.2022.47.2.126>

배 한 주(Hanju Bea)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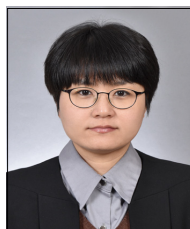
- 2013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임상 간호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9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2020년 2월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MBSR(마음챙김 명상), 플로리시

김 연 하(Yeonha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3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2월 ~ 현재 :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성인간호